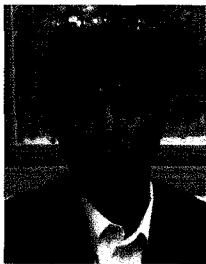


# 인터넷 세상 중독인가? 문화인가?



차병주  
보라매 1WELL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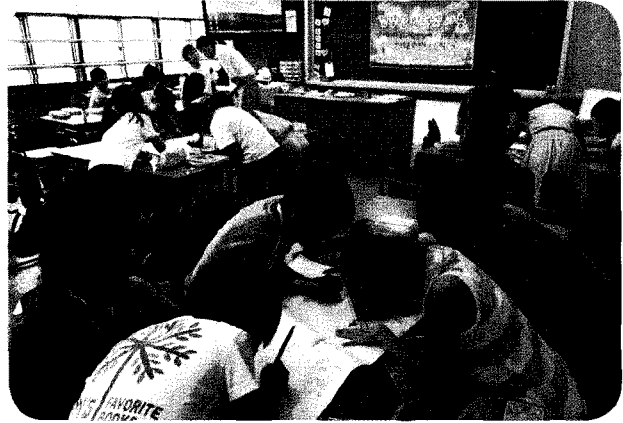
기성세대에게 인터넷문화는 낯설고 어색하다. 그래서 인터넷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도 인지적인 에너지를 상당히 써야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문화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활동의 일부이다. 언론에서 트위터나 페이스북하면서 이슈가 되었을 때, 기성세대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새로운 조류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과제로 인식했다면, 청소년들에게는 그냥 새 옷을 사서 입는 것과 같은 하나의 일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문화에 대한 체감온도의 차이가 문화와 중독의 차이가 될 것이다.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인간은 유희의 동물”이란 정의가 있다. 그만큼 인간이 놀이에 대한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기성세대에게 인터넷문화가 놀이의 공간이 되는 것은 하나의 선택이라면 청소년들에게 인터넷공간에서 놀이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인터넷공간에서 게임을 하고, 숙제도 하고, 대화(채팅)도 하고, 자신을 표현(UCC, 싸이월드, 블로그 등)하기도 하고, 의견을 제시(인터넷 댓글, 트위터 등)하는 등 이런 모든 활동들이 그들에게는 놀이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공간이 별다른 대

안이 없는 놀이공간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 청소년이 처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청소년들은 일본처럼 지진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는 없더라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잠재적인 공포의 수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 아이들처럼 10살 이전부터 학원생활을 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대학입시를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 어느 세대 전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문화갈등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것에 몰입되어 청소년의 문화가 중독으로 낙인찍힌 적은 없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이 억지라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어른으로 살아남기 위해 조기부터 치열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건 잘하지 않건 상관없이 학원 두서너 개 다니게 하는 것은 기본이다. 부모들은 말한다. “우리아이에게 일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남만큼만 해라.” <남만큼> 아이들이 인지하기에는 참 애매한 기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자녀들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노동량은 어른에 비해도 결코 뒤지지 않고 스트레스 또한 어른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노동의 대가로 숨 한번 크게 쉴 공간과 놀이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인터넷 공간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인터넷 공간인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이다.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의 청소년들이 처한 실정을 잘 모르는 것이다. 학교 다녀와서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옮기는 짹짹, 혹은 모든 학원을 마치고 돌아와서 잠들기 직전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이들이 놀기 위한 시간의 전부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어쩌다 시간이 나서 야외 활동을 하고 싶어도 같이 할 친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나름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은 친구들끼리 같이 놀기 위해 스케줄 맞추는 것도 쉽지 않다. 한마디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공간만큼 적당한 것이 없는 것이다.

필자가 본 센터에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둔 부모를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청소년이 처한 현실과 인터넷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모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때때로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채팅이나 핸드폰 문자를 활용한다. 특히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는 것은 부모와 대화하거나 수업 중에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 물론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이해하는 것조차 포기해야 할까? 청소년들에게 채팅이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넘어 그들의 중요한 문화이다. 청소년들은 채팅이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와 같은 짧은 표현 속에 그들의 인지와 정서를 함축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채팅이나 핸드폰 문자 속에 다양한 신조어와 줄임말, 이모티콘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때로 청소년들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하기 보다는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더 편하고 안전감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화에도 역기능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현재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이나 모바일 중독 일 것이다.

소위 말하는 인터넷 중독으로 상담에 의뢰되어 오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인터넷이란 가상의 공간을 어떠한 교육도 없이 접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놀하는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습관이 되고 자연스럽게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데, 조기교육이 중요하듯이 인터넷에 대한 교육 역시 조기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라는 세계 1위 IT 강국이지만 정작 정보기술에 대한 조기 교육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잘못된 인터넷 사용 습관을 바로 잡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서 인터넷을 필요충분조건으로 인터넷과 함께 살아가며 인터넷 문화를 성장 발전시켜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올바른 인터넷 사용 습관의 기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을 문화로 공유하며 기성세대로 성장하여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부모가 인터넷 문화를 잘 모르다보니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 중독으로 찾아오는 부모들 중 자신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잘 하고 있는데 아이가 왜 인터넷 중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호소하는 부모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물었더니 음란물과 폭력물에 대한 접근 차단과 인터넷 사용 시간을 정하고, 컴퓨터를 모두가 볼 수 있는 거실에 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질에 대한 통찰 없이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컴퓨터 모니터나 TV를 통해 교육 애니메이션을 자녀 혼자서 시청하게 하는 것은 안보여 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성교육을 시키듯이 그 연령대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인터넷만 아니라면 무엇이 아이들에게 유해한 것인지 알고 그것을 교육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모 역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무익한지를 구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에 대



해 확실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센터에 찾아오는 부모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친구들과 어울려요!” 하고 말하면서도 부모들은 자신들이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 그만큼 인터넷이란 공간은 부모에게 낯설고 어색하다. 인터넷은 재미있다고 하나 부모는 무엇이 재미있는지 잘 모른다. 단지 유추하길 자신이 유아기나 청소년기에 오락실에서 했던 전자오락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한다. 부모 자신이 그런 것은 한 때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가 게임 때문에 학교를 가지 않거나 부모에게 거친 언행을 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한다. 또 어떤 부모는 그것이 무서워 아예 접근 자체를 차단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인터넷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며 살아야 하는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듯이 인터넷에 대

한 가치관 역시 정립해야하고 그런 가치관은 인터넷의 성격과 속성을 파악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야 우리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똑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우리 아이는 중독이고 어떤 아이는 중독이 아니냐고 묻는다. 인터넷 중독을 말할 때, 꼭 들어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금단과 내성, 일상생활의 장애이다. 금단은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불안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성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만족에 대한 양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고, 일상생활 장애는 인터넷 때문에 등교 거부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일상생활의 한 부분으로 안고 살아야 하는 청소년들에게 과연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기준인가? 는 따져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독의 문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할 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통제 문제이다. 즉 내 의지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터넷을 그만 둘 수 있는가이다. 다른 물질 중독의 경우 사람의 의지로 통제가 되지 않는 점을 꼽고 있고,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중독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알콜 중독의 경우 자신의 의지로 술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역시 같은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그만두고자 할 때, 정말 그만둘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터넷 중독은 사람의 의지로 그것이 조절되지 않아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중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인터넷 중독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하다. 인터넷 과다사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중독까지는 아니어도 인터넷 과다사용으로 인한 위험 사용자나 주의 사용자이다. 물질 중독의 경우 물질마다 중독 요소가 있듯이 인터넷 역시 중독 요소가 있다. 그러나 물질 중독이 사람마다 중독을 일으키는 요소가 다르지 않다면 인터넷은 사람마다 중독에 이르게 하는 요소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요소가 선정과 폭력성이지만 인터넷에서 그런 요소 외에도 많은 요소가 심리사회학적 요소와 맞물려서 중독으로 이끌고 있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그 공간이 주는 파급효과와는 별도로

로 너무도 쉽게 컴퓨터나 핸드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너무도 많은 정보가 있고, 청소년들에게 그 정보들이 여과 없이 전해지는 것이 문제의 핵심 중 하나이다. 그와 같은 정보에는 음란물이나 폭력물과 같은 누구나 나쁘다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정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청소년들에게 정보 자체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이란 엄청난 공간이 상업성과 연결되면서 청소년들이 옷을 입는 것과 같은 당연한 활동이 그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얼굴도 있지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이 함께 공존한다. 온라인 게임 역시 게임의 종류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인기 있는 게임들은 기업의 이윤과 맞물려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그들에게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이윤추구가 먼저이다. 게임중독으로 본 센터에 의뢰 되어 온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게임 아이템을 위해 몇 만원에서 몇 십 만원 쓰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들이 큰돈을 쓰지는 않는다. 천원 결제하는 것도 아깝게 생각하다가 아이템 없이 게임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최소한의 아이템을 용기를 내어 구입한다. 그럼 지금까지와는 다른 너무 재미있는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몇 번 반복하다보면 좀 더 비싼 아이템, 혹은 몇 천원에서 몇 만원짜리 세트 아이템을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그도 부족해지면 돈을 구하기 위해 안타깝지만 좋지 않은 방법도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기에 어른들은 그와 같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문화를 중독으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가 어른들의 경제 논리에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마음껏 그들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위해 어른이 무엇을 해야 할 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인터넷이란 공간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상상의 날개를 펼치며  
 자신을 표현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기에  
 어른들은 그와 같은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상처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